

[전태일자료] 원섭에게 보내는 편지

Socialist

원섭아. 1가 너에게 편지 쓴다. 지금 백과사전을 10
이 열매나 중 이상한 현상이고 평범한 사실인가?
너는 내가 이 친구. 나는 내가 마는 대월이
적응의 상어적인 살기로구나.
외 편을 함께 되는데도, 유일한 것은 모르겠다.
그러나. 특히 상충하고 부진이가 누구에게 말하러 온고는 못질할
현상이기에 쓰고 있는 것 같다.
서울에서 5년이란 세월이 지난 지금. 너에게 글감이 너무나
많다. 그러나 너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다.
현실적으로 숙제란 것은 너에게 심부름 원론만 쓰려고.
이렇게 편지를 쓸까? 아니다. 누구에게 겨우서 할지는 모르나
다 이렇게 처량한 심정을 어느 누구에게 누구 주려고 전한 말인가?
물론이다. 너는 나의 친구. 내가 외로움과 함께 살고 있다.
너는 나의 친구와 정이하는 친구. 너에게 단숨에 하고 괴로운 심정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너도 마음껏 말해.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제면. 좀 편안한 것 같다. 내가 떠나고 싶은. 외로움과 함께 살고
또다시 떠나고 싶은. 고결한. 내 심정을 조금이라도 적을 수
없을 것 같다. 내가 외로움을 느끼는 뒤에라 오게

나는 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1월 15일경에.
공자판에 좀 팔아 줄. 갖고 다. 너에게서 좀 이상하게.
꽃이 만물이 됐다. 이럴 수 없는. 4월이 됐다.
그날은. 한시도 오를 수 없다. 겨울하고. 화두처럼. 한참 있다.
또는. 오래 잊지 못할. 흔한 것을. 아주 단련하다.
V. 이제는. 조차도. 무엇이. 부끄러워. 같은. 한. 영혼. 안으로. 나. 있다.

그러나. 바르니. 다짐은. 해서. 그런지. 아. 한. 5시. 4.5분.
이부자.는. 건.거.리.회.버.렸.어. 정.만.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다.

[illegible]

12

나는 오늘 마친. 언뜻이. 나쁜 나날. 정신적으로 작게 한 것.

①. 아까부터 애는 내가 몸사랑이. 신질을 추구한다는 것을
하고 생각된다. / 알았지만 그와 같은 한 번도 애는 없었던

여기 한쪽 줄에 하나다. 신해로으로 약하고. 라온심이 강하면 개가
나를 물고 먹는다. 그러므로 신해로으로 약하고. 라온심이 강하면 개가

모든 부조리한 현실은, 바로 이 어둠의 박수인양. 깨닫게

어떻게 하니 그대도. 무슨 잘못이 있는가? 현실이

조용히 누워. 종로와 병초 리웃과도 하고. 내구 한 번
갔다 나마. 온다를 믿어 놓고. 김경우 나눈 갈. 비극이겠어.

12년 ~~원래~~ ^{전날} ~~매는~~ ^{매는} 때 리 ~~죽~~ ^죽 ~~가~~ ^가 ~~중~~ ^중 ~~국~~ ^국
 12년 ^{전날} ~~원래~~ ^{매는} ~~매는~~ 때 리 ~~죽~~ ^죽 ~~가~~ ^가 ~~중~~ ^중 ~~국~~ ^국

산소 함량 <3%의 산소들은 함량 5% 이상

~~관공자 - 관공자 - 능지려 - 드디어 하수들~~

~~비밀번호는 바가 1234567890~~

인것 봐줬다 조금이라도 더 크게 들리려고.
드디어 지나 뚫. 비명소리 들. 내기 시작했 다.
차이 큰채로. 커다란호로 오는 형태를. 후가 안라고. 거 뒤를
앞으로 같은. 소리들. 내는것이다. 후고.
그럼리만. 그것들 두가 완전한 말이야. 여러한말이.

내가 한바스 인. 2바스 인. 한조각 갖네.
번번이 들어나고. 전기가 휘파하여 숨이 막힐정이다.
1. 뭣있보아. 현재 를. 안는 것들. 그것도 인인이반은카에를어.
앞에 초점소가. 후덕에 실려한다. 다섯마리 들.
한바스로. 한이 안다. 후는기 원한다.
영혼은. 40분이 커고. 전광필도씩 했다.
인부들이 나와 있어. 들은이가 옛 중년남자가. 심여병 되었고.
나같이 젊은 사람은. 셋이 있었네.
무사한. 다. 전출한거에. 머리는 애학생. 하임이고. 연론은.
여주. 작성 이를 배제하는. 배후가. 청년이 있어
일이 시작 되었는데. 나는. 산을 하나 매당 안다. 논랑이 에.
중이상표도 안떨어진. 끝. 동쪽고 보. 죽한. 어느무사판.
세어나 복수 오는삼 이노.

심오록성이. 아같은. 무작을 거치고. 피비누가 중년한. 강간.
지하철이. 뚫로. 강해. 하나. 양을. 뚫고. 배려했기.
내가 길에서. 생각 하는것처럼. 22만. 두가. 들어. 라. 든. 거. 또. 수.
같이. 라. 든. 거. 하는. 것. 조금. 더. 있어.
모든. 것.을. 뚫. 전.만. 두가. 하나. 안. 성. 이. 나. 구. 구. 를. 두. 는. 사. 람.
또. 없. 었. 으. 나. 두. 것. 을. 물. 어. 오. 는. 사. 람. 도. 없. 었. 고.
나. 는. 큰. 채. 를. 인. 식. 하. 는. 사. 람. 도. 없. 어. 고. 계속. 두. 가. 지.

오는. 라. 는. 거. 는. 어. 려. 게. 전. 전. 것. 이. 가. 는. 생. 각. 을. 하. 는. 것. 같. 아.
부. 는. 나. 사. 나. 각. 장. 같. 으. 면. 회. 소. 간. 이. 는. 들. 어. 는. 노. 기.

불쌍하다면 곧 집터를 닦을 자리였다 집을 짓고 있는 개미보다도 더 가엾고, 밟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목을 졸라 죽여버리고 싶네,

이런 어질고 꾸밈없는 현실 그대로를 알몸뚱이 하나라도 놓칠세라 있는 힘을 다해 약한 자기와 불쌍한 자기의 분신을 위해 강한 이상을 동원하여 팔과 허리 사이를 오리발의 물갈퀴처럼 벌리고 가시투성이고 얼음처럼 찬, 바위처럼 무거운 냉혈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어떤 어머니. 왜 내가 저런 현실적인 인간을, 사람을, 내가 정신적으로나마 학대해야 된단 말이나? 나는 오늘 아침 분명히, 어머니를 정신적으로 학대한걸세. 그리고 나 자신을 학대한 걸세.

어머니께서는 내가 공사장에 삽질을 하러 간다는 것을 알고 계셨거든. 약한 내가, 그런 일을 한번도 해본 일이 없는 자기의 소중한 전체의 일부가 오늘 뜨거운 태양 아래 비지땀을 흘려야 한다니..... 신체적으로 약하고 자존심이 강한 내가 하루를 무서히 넘길지, 정신적으로 얼마나 많이 상처를 당할 것인가를 생각하신 것일세. 어미의 그런 심정을 자식은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부조리한 현실을 자식은 어미의 책임인 양 학대했던 거야. 무언(無言)으로 책임추궁을 했던 거야. 대답을 못하게 해놓고 대답을 아니 한다고 자신에게 냉소했지. 언제나 그랬듯이 언제나 그렇구나.

무슨 잘못이 있단 말이나?

현실이 나를 보고 외면하고 냉소한다고 나도 현실과 같은 패가 되어 나를 조롱하는구나. 조롱과 냉소가 지긋지긋하고 너무나도 답답했어..... 잠 시나마 본래의 나를 밀어놓고 감정의 나는 입을 비죽거렸던 것일세.

버스가 왔네.

콩나물시루 같다고 흔히들 말하지. 버스는 고무풍선처럼 자꾸 늘어났고 머리가 긴 화려한 산소, 모자를 쓴 산소, 형형색색의 산소들은 철판과 유리 로 된 벽돌을 힘껏 밀었지. 조금이라도 더 크게 늘리려고. 드디어 하나 둘 비명소리를 내기 시작했네. 자기의 존재를, 지금 당하고 있는 형편을 좀 알아달라고 거의 동물과 같은 신음소리를 내는 것일세.

그렇지만 누가 그것을 알아준단 말이나?

어찌하란 말이나?

내가 탄 버스에 한 백 명은 탔을 것 같네. 벌써부터 땀이 나고 공기가 희박하여 숨이 막힐 지경이야. 못 짐승보다 천대를 받는 인간들. 그것도 인간 이 만든 차에게 말이다.

앞에 젖소가 트럭에 실려간다.

다섯 마리를 칸막이를 해서 실었다. 우습지? 원섭아.

악몽 같은 40분이 지나고 현장엘 도착했지.

인부들이 나와 있었네. 늙은이가 넷, 중년 남자가 십여 명 되고 나 같은 젊은 사람은 셋이었네. 두 사람은 다 흰칠한 키에 머리는 대학생 타입이고 얼굴은 더욱 학생티를 내게 하는 애송이 청년이었어.

일이 시작되었네.

나는 삽을 하나 배당받았지. 손잡이에 종이 상표도 안 떨어진, 끝이 둥글고 뾰족한 어느 공사판에서나 볼 수 있는 삽이야. 삽오륙명이 다 같은 목적 을 가지고, 파내다가 중단한 장차 지하실이 될 곳을 향해 파내려갔지. 내가 집에서 생각하던 것처럼 두려움이라든지 또 수치심이라든지 하는 것은 조금도 없었어.

오늘 처음 왔건만 누구 하나 간섭이나 주의를 주는 사람도 없었지. 이름을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고,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저 묵묵하게 오늘 하루를 어떻게 견딜 것인가만을 생각하는 것 같애.

무슨 회사나 공장 같으면 최소한 이름 정도는 물어볼 걸세. 그러나 묻는 게 다 뭐가? 아는 체도 없네. 도무지 이상할 지경일세. 원래 노동판이란 다 그런 것인가 싶네.

밑바닥을 파 흙을 위로 올리는 작업이었네.

나는 뚱뚱한 중년 남자와 마주보고 삽질을 했지. 꽤 재미있는 일이었네. 반시간이 되기도 전에 이마에 땀이 났고 손바닥이 후끈거리거든.

그런데 우스운 일이 있네.

나와 마주보고 삽질을 하던, 배가 사장 배 이상으로 앞으로 처지고 키는 1.7m나 될 사람이 어디서 얻어 쓴 건지 기름에 절은 운전수 모자를 쓰고 바지는 군복바지에 흰 고무신을 신었네. 런닝샤쓰는 구멍이 별집처럼 뚫린 것을 입고 오른손엔 목장갑을 끼었는데 손가락은 다섯 개가 다 나오고 손바닥 부분만 장갑 구실을 하는 것일세.

얼굴은 일을 할 때나 쉴 때나 꼭 마도로스가 지평선을 바라보는 그런 표정일세. 그저 무의미하게 사물을 판단하지 않고 사는 사람 같았네. 삽질을 하나 점심을 먹으나 시종 무표정일세. 만약에 그 기름에 절은 운전수 모자를 벗겨버린다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 바보가 되지 않으면 죽어 버릴 것 같네. 그만큼 그 모자는 그 사람을, 그 돌부처 같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얼굴을 하고 있는 그 사람 전체를 육체의 맨 꼭대기인 머리 위에 서서 감독하면서 그를 속세의 사람과 같이 만들어버리고 있었네. 지금 현재 삽질을 하고 있으니 말일세.

사실은 그 사람이 삽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세.

그 때에 절은 모자가 하고 있는 걸세.

얼마나 위로해야 할 나의 전체의 일부냐!

얼마나 불쌍한 현실의 패자(敗者)냐!

얼마나 몸서리치는 사회의 한 색깔이나!

그렇다! 저주받아야 할 불합리한 현실이 쓰다 버린 쪽박이다! 쪽박을 쓰기 시작했으면 끝까지 부서지지 않게 잘 쓰든지 아니면 아예 쓰지를 말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저 무자비하게 사회는 자기 하나를 위해 이 어질고 착한, 반항하지 못하는, 마도로스 모자를 쓴 한 인간을, 아니 저 희들의 전체의 일부를 메마른 길바닥 위에도 아무렇게나 내던져버렸다.

이 가엾은 인간은 처음 얼마간은 뜨거운 길바닥에서 정신을 못 차린 채로 얼마를 지내고, 또 정신을 차리고 얼마간의 시간을 보내고, 또 의지와 자 존심으로 얼마를 보내고, 마침내 금이 간 쪽박은 뜨거운 열기에 물기가 증발되어 말라비틀어져서 두 쪽이 난다.

그중 한쪽은 자진해서 쓰레기통에 기여들어가 눈을 감고 죽어버렸네. 또 한쪽, 떨어져나간 한 쪽은 어떻게든지 다시 물기를 빨아들여 비틀어졌던 육체를 다시 펴고 어떡해서든 그 전체 속에 다시 묻쳐보기를 희망하는 것일 거야.

그런데 내 앞에 선 이 반쪽은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나간 반쪽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애. 지난날 그 많은 양의 물을 삼키던 그 반쪽을 말일세. 나도 예외는 아닐세. 그렇지만 나는 그 속에 묻치지를 않고, 그 뭉친 덩어리를 전부 분해해버리겠네.

오늘 나는 여기서 내일 하루를 구(求)하고 내일 하루는 그 분해하는 방법을 연구할 것일세. 방법이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나는 그 덩어리가 자진해서 풀려지도록 그들의 호흡기관 입구에서 향(香)을 피울 걸세. 한 번 냄새를 맡고부터는 영원히 뭉칠 생각을 아니하는 그런 아름다운 색깔의 향을 말일세. 그렇게 되면 사회는 덩어리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또한 부스러기란 말이 존재하지 않을 걸세.

어떤가? 서로가 다 용해되어 있는 상태는 멋있겠지?

배가 고프기 시작일세.

아직 일이 끝나려면 서너 시간은 있어야겠는데 뱃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머릿속이 텅 비어 있네. 확실히 노동은 건강에 좋은가 보네. 내가 배고픈 것을 느끼고 있으니 말일세.

그 운전수 모자를 쓴 사람은 나보다 더 시장한가 보네. 벌써 두 번이나 수도꼭지에 입을 대고 그러고도 시원찮은지 담배를 꺼내 피우기를 서너 번. 그래도 무엇이 부족한지 연방 심장 쪽을 쳐다보네. 세 삽 뜨고 또 쳐다보고. 왜 그렇게 쳐다보는지 처음에는 궁금했으나 나의 궁금증을 풀어주거나 하려는 듯 심장이 간식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아..... 얼마나 반가운 물질이나? 십 원짜리 삼립빵 두 개. 정말 꿀맛 같다. 두 개만 더 있었으면 얼마나 족할까? 너무 시장했으므로 '코끼리에 비 스텍' 정도밖에 욕구를 못 채웠네.

오후 5시. 아, 얼마만 더 지나면 집애를 갈 수 있겠구나. 빨리 가고 싶다. 그 보기 싫던 열무김치에라도, 이십 년을 하루같이 나를 대하던 구수한 밥 을 마음껏 욕심을 내어 먹어보리라. 이런 공상을 하면서 삽질을 계속하고 있었네. 손바닥은 부르터서 피가 나오고 허리는 아파서 펴질 못하겠네. 얼마 있지 않으면 7시가 되겠지.

자네 내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를 걸세. 암, 나도 이런 짓을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하였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넘겨 나는 그저 내일을 위해 오늘 을 빨리 넘기려는 생각밖에 없었네. 아침 때 생각으로 말일세.

자네 내가 삼 년 전부터 제품 계통의 재단사인 줄로만 알 걸세. 그리고 묻지 않는 자네의 그 침착한 성격을 잘 아네. 지금쯤은 한참 골똘하게 생각을 하고 있겠지. 애써 생각하지는 말게. 내가 서서히 실토할 테니까.

들어보게. 이런 현실 속에서 떨어져 나온 나일세.

내가 일하던 공장은 종업원이 30여 명쯤 되는 어린아이들 잠바를 만드는 곳이었다네. 지금은 가을잠바를 만들지만 조금 있으면 동복용으로 잠바 속에다 털을 넣고 스펀지를 넣을 걸세.

종업원 대부분이 여자로서 평균 연령 19~20세 정도가 미성을 하는 사람들이고, 14~18세가 시다를 하는 사람들일세. 보통 아침 출근은 8시 반 정도. 퇴근은 오후 10시부터 11시 반 사이일세. 어떤가? 너무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여기에 문제가 있네.

시간을 따져보세. 하루에 몇 시간인가? 1일 14시간일세. 어떻게 어린 시다공들이 이런 장시간을 견뎌내겠는가? 연령이 많은 미성공들도 마찬가지로 지일세. 남자들보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약한 여공들이, 더구나 재봉일이라면 모든 노동 중에서 제일 고된 노동일세. 정신과 육체를 조금이라도 분리시키면 작업이 안 되네. 공사관 인부들은 육체적 힘을 요구하고 사무원은 정신적 노동을 요구하지만 재봉사들은 양자를 다 요구하거든. 그 많은 먼지 속에서 하루 14시간의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노동자들의 모습은 너무나 애처롭네.

아무리 부(富)한 환경에서 거부당한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도 채찍의 한계가 있는 인간이 아닌가?

원섭아! 나는 재단사로서 이 사람들과 눈만 뜨면 같이 지내거든. 정말 여간 고역이 아니야. 이제 겨우 열네 살이 된 어린아이가 아침부터 퇴근시간까지 그 힘에 겨운 작업량을 빨리 제 시간에 못해서 상관인 재봉사들에게 꾸중을 듣고, 점심시간이면 싸가지고 온 도시락을 먹는데 코끼리가 비스킷을 먹는 정도의 양밖에 안 될 거야. 부잣집 자녀들 같으면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한창 재롱이나 떨 나이에, 생존경쟁이라는 없어도 될 악마는 이 어린 동심에게 너무나 가혹한 매질을 하고 있네.

이 편지는 전태일 열사가

1969년 9월 30일경

청옥 시절의 친구 원섭에게

보내는 편지이다.